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 감사위원회 효과를 중심으로

박성욱** · 김서현***

〈요 약〉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영자의 목표불일치 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주는 성과평가 및 보상과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경영자의 사적이해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중대한 왜곡표시로 나타날 수 있고 감사측면에서는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통제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인 감사계약 체결 시 증가된 감사위험으로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부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기준 보상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간의 관계에 감사위원회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이는 경영자에게 회계이익기준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통제위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위험이 커질수록 감사노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시간당 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감사인이 더욱 높은 확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에 비해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계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의 규모,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회계나 재무전문가 포함 여부로 구분한 감사위원회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을 2022년까지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 본 연구는 2023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된 연구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주저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수료), ksh2019@khu.ac.kr, 교신저자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모두 증가시키며, 이러한 관계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가의 경우 경영자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의 공통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스톡옵션 보상의 경우 성과평가에 잡음(noise)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경영자에게 이익기준 보상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경영자의 회계이익기준 보상제도가 갖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위원회

I. 서 론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익이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주는 경영자의 목표불일치 행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Lambert and Larcker(1987)와 송동엽·김영환(2018)의 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이 주주와 경영자 간의 상충되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 유인 및 동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은주·송영렬·심원미(2019)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시킬 목적 또는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상증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진배·변동헌·신준용(2004)은 동기부여 문제와 관련된 대리인 비용으로 기회주의적 효용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인의 노력 회피, 투자위험의 회피, 그리고 기업자산에 대한 특권적 소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Bergstresser and Philippon (2006)과 Burns and Kedia(2006)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를 위해 기회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경영자에게 회계이익기준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측면에서도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회계이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회계제도와 통제절차가 유효하게 설계되었더라도 통제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최고경영자격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감사인은 계약 체결을 할 때 증가된 감사위험으로 인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 이익기준 보상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자 회계이익 보상제도가 갖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영자의 성과평가와 보상은 대표적으로 회계성과에 기반한 현금보상인 회계이익 보상과 시장성과인 주가수익률에 기반한 스톡옵션 보상이 있는데, 이 중 스톡옵션 보상과 관련하여 이상철·박재완·정갑수(2010)의 연구에서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이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loan(1993)에 따르면 스톡옵션 보상의 경우 주가는 경영자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의 공통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과평가에 잡음(noise)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간, 분기별 회계이익에 기초한 성과평가 및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을 의미하는 회계이익기준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위원회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 연구 목적을 살펴보고 제 II 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 III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 결론을 맺고 연구의 결과를 기술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에 대한 선행연구

Holmstrom(1979)은 경영자의 노력을 관측할 수 있는 정보는 경영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정하는데 중요하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성과 이외에도 회계성과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Healy(1985)는 회계이익기준 보상에 대한 상한 및 하한선을 벗어날 경우에 미래의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ng(2004)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과 경영자의 보상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경영자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행위를 보상으로 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회계이익기준 보상은 Lambert and Larcker(1987)와 Sloan(1993)에 따르면 경영자의 행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험분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이익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Dechow and Sloan(1991)과 Ittner et al.(1997)에 의하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가 단기적으로 연간, 분기별 회계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장기성과를 희생시킬 수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황인태(1995)와 지성권·김태수(2001)는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및 경상이익과 경영자의 현금 보상금액 간의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장석오·노현섭(2004)에서는 경영자 보상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양(+)의 관계로 나타나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보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은 Bergstresser and Philippon(2006)과 Burns and Kedia(2006)에 의하면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를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영자에게 이익기준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측면에서도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통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보수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Simunic(1980)은 사업위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노력도 커지므로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Gul et al.(2003)은 기회주의적인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면 감사보수도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기준 보상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행동할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로 나타나 감사측면에서도 통제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노력을 많이 투입해 감사보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노력 정도를 수 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용치(proxy)로 감사시간이 있다. 권수영·신현걸·정재연(2006)은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초과하여 투입하면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억제된다고 보았다. 이는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의 위험이 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감사시간이 더욱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현욱·이강일(2014)은 회계이익의 질을 의미하는 수익비용의 대응 수준이 낮아지면 감사시간이 더욱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감사보수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성용·박범진(2012)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감사보수에 비하여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감사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더욱 높은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에 비해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것이므로 경영자에게 부여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은 시간당 감사보수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1-2]: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1-3]: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3. 감사위원회에 대한 선행연구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감사를 두지 않는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가 이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Lennox and Park(2007)에 의하면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처벌과 평판의 훼손 등을 우려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려 한다. 특히 감사위원의 수는 감사위원회 규모를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oitash and Hoitash(2009)는 규모가 클수록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활용할 자원이 많아지기에 회계정보의 품질도 높고 감사보수를 더 많이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면 1명 이상의 회계나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odwin-Stewart and Kent(2006)는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자에게 부여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1] :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2-2] :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표본의 선정

1. 연구설계

가. 변수의 측정

(1)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의 측정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의 식(1)을 설정한다. 이때 김용길 · 이용수 · 한승수(2015)에 따라 각각의 변수의 전기 대비 변화분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 변화분이 경영자 1인당 평균 급여의 변화분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Delta COMP_{i,t} = \alpha_0 + \alpha_1 \Delta OI_{i,t} + \varepsilon_{i,t} \quad \text{식(1)}$$

여기서,

$\Delta COMP$ = 사업보고서상 i 기업 t 년도의 1인당 평균 임원 급여의 변화분 ;

ΔOI = i 기업 t 년도의 영업이익의 변화분 ;

ε = 오차항.

식(1)에서는 임원의 1인당 급여의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영업이익의 변화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기업의 임원은 등기 및 미등기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상 보고되는 임원의 평균 급여는 등기임원에 대한 것이므로 각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분이 경영자의 급여의 변화분을 설명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표본은 경영자의 급여의 변화분과 영업이익의 변화분에 대하여 8개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영업이익 변화분(ΔOI)의 계수인 a_1 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경우 해당 기업을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있는 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한다.

(2)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측정

본 연구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살펴본다.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의 노력의 투입에 대한 대응치로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설명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자연로그를 취한 값($LnAF$, $LnAH$)으로 측정한다(Simunic 1980 ; Carcello et al. 2002 ; Cosgrove and Niederjohn 2008).

(3) 감사위원회 특성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감사위원회 특성을 선행연구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규모 및 전문성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자산을 1조원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Abbott et al.(2004), Anderson et al.(2004), 그리고 Lennox and Park(2007)의 연구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AC)를 변수로 포함한다. 또한 Chen and Zhou(2007)와 Anderson et al.(2004)에 의하면 감사위원의 수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그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규모에 해당하는 감사위원 수의 자연로그값($LnAC_Size$)을 변수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Abbott et al.(2004), Chen and Zhou(2007), 그리고 전영순·정준희·하승현(2013)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회계나 재무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면 1의 값을 가지는 지시변수($ACEXP$)를 이용한다.

나.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시간당 보수는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모형은 다음의 식(2)에 해당하는 회귀분석모형이다. 식(2)의 아래 첨자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begin{aligned} \ln AF(\ln AH, \text{Feeperhour})_{i,t} = & \beta_0 + \beta_1 EBC_{i,t} + \beta_2 BIG4_{i,t} + \beta_3 SIZE_{i,t} + \beta_4 INVREC_{i,t} + \beta_5 LEV_{i,t} \\ & + \beta_6 CURR_{i,t} + \beta_7 LOSS_{i,t} + \beta_8 GRW_{i,t} + \beta_9 LAGROA_{i,t} \\ & + \beta_{10} OCF_{i,t} + \beta_{11} FOR_{i,t} + \sum YEAR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2)}$$

여기서,

$\ln AF$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ln AH$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Feeperhour	= 시간당 감사보수(감사보수/감사시간) ;
EBC	=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
$BIG4$	= 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LEV	= 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
$CURR$	= 유동자산/유동부채 ;
$LOSS$	= 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
GRW	= 매출액성장률(매출증가액/전기매출액) ;
$LAGROA$	= 전기총자산수익률 ;
OCF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FOR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sum YEAR$	= 연도더미 ;
ε	= 잔차항.

식(2)의 주요 관심변수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EBC)이다. 따라서 이를 추정 한 결과, [가설 1-1]과 [가설 1-2]에 따라 EBC 계수 β_1 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설 1-3]에 따라 β_1 의 계수 값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 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서비스 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형회계법인에 비해 대형회계법인은 감사실패에 의한 기회비용이 크므로 고 품질의 감사를 제공할 유인이 있다. 그리고 감사위험 모형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목표 적발의 위험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감사노력을 더욱 투입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어 감사보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Lennox et al.(2014)에 따라 대형감사인 여부($BIG4$)를 통제한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객 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므로 Carey and Simnett(2006)과 Lennox et al.(2014)에 따라 고객 기업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SIZE)을 통제한다. 박범진(2021)에 따르면 총 자산에서 채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INVREC)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채고자산의 진부화뿐만 아니라 유동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감사보수 및 시간도 많아질 것이므로 이를 통제한다. 그리고 재무구조 및 유동성은 기업의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파산위험을 대응하는 주된 감사 사항이다. 이에 Carey and Simnett(2006)과 Litt et al.(2014)에 따라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LEV)과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CURR)을 통제한다.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도 회계이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에 Carey and Simnett(2006)과 Litt et al.(2014)에 따라 당기 손실 보고 여부(LOSS)를 통제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률은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영업환경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매출액 성장률(GRW)을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기성과와 당기 영업현금흐름은 당기의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Chi et al.(2009)에 따라 전기 총자산이익률(LAGROA)과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OCF)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은 감시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이 높을수록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도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YEAR) 더미변수도 모형에 포함한다.

다음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은 여러 감사위원회의 특성 변수(AC_Characteristics)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식(3)을 제시한다.

$$\begin{aligned} LnAF(LnAH)_{i,t} = & \beta_0 + \beta_1 EBC_{i,t} + \beta_2 EBC_{i,t} \times AC_Characteristics_{i,t} + \beta_3 AC_Characteristics_{i,t} \\ & + \beta_4 BIG4_{i,t} + \beta_5 SIZE_{i,t} + \beta_6 INVREC_{i,t} + \beta_7 LEV_{i,t} + \beta_8 CURR_{i,t} + \beta_9 LOSS_{i,t} \\ & + \beta_{10} GRW_{i,t} + \beta_{11} LAGROA_{i,t} + \beta_{12} OCF_{i,t} + \beta_{13} FOR_{i,t} + \sum YEAR + \varepsilon_{i,t} \quad \text{식(3)} \end{aligned}$$

여기서, 감사위원회의 특성 변수(AC_Characteristics)는 다음과 같다.

AC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
LnAC_SIZE	= 감사위원 수의 자연로그 값 ;
ACEXP	= 회계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는 1, 그렇지 않으면 0.

식(3)의 가설검증을 위한 관심변수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감사위원회 특성의 상호작용변수인 $EBC \times AC_Characteristics$ 이다. 여기서 감사위원회 특성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감사위원의 규모 및 전문성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에 따라 $EBC \times AC$, $EBC \times LnAC_SIZE$, 그리고 $EBC \times ACEXP$ 의 계수 β_2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β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면 이익기

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경영자 보상관련 자료,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 그리고 기타 재무제표 자료는 Fn-Guide와 TS2000에서 추출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직접 수집(Hand Collecting)한다.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전기 대비 당기의 변화분을 최소 8개년 이상 도출할 수 있는 표본 사용하므로 사업보고서에 최소 9개년도 이상 경영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 기간 내의 영업이익 자료가 누락되지 않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표본 추출 과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연도 표본은 5,278개이다.

- (1)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 (2)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 특성을 수집 가능한 기업 ;
- (3) Fn-Guide와 TS2000에서 경영자 보상,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재무제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 (4) 식(1)에 의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다. 이때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극단치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1%와 99%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한다.

<표 1> 기술통계량

Variable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i>LnAF</i>	5,278	18.785	0.940	14.914	18.133	18.644	19.296	22.851
<i>LnAH</i>	5,278	7.516	0.892	1.386	6.913	7.359	8.002	11.364
<i>Feeperhour</i>	5,278	2.522	0.254	1.737	2.398	2.522	2.632	14.251

〈표 1〉 기술통계량 (계속)

Variable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i>EBC</i>	5,278	0.194	0.395	0.000	0.000	0.000	0.000	1.000
<i>AC</i>	5,278	0.403	0.491	0.000	0.000	0.000	1.000	1.000
<i>LnAC_SIZE</i>	5,278	0.494	0.550	0.000	0.000	0.000	1.099	1.792
<i>ACEXP</i>	5,278	0.606	0.489	0.000	0.000	1.000	1.000	1.000
<i>BIG4</i>	5,278	0.612	0.487	0.000	0.000	1.000	1.000	1.000
<i>SIZE</i>	5,278	26.920	1.470	24.199	25.915	26.673	27.662	31.220
<i>INVREC</i>	5,278	0.228	0.152	0.000	0.113	0.220	0.329	0.624
<i>LEV</i>	5,278	0.397	0.213	0.014	0.220	0.398	0.550	0.936
<i>CURR</i>	5,278	294.540	628.226	12.250	89.710	141.685	249.160	5089.970
<i>LOSS</i>	5,278	0.247	0.431	0.000	0.000	0.000	0.000	1.000
<i>GRW</i>	5,278	0.046	0.310	-0.795	-0.069	0.015	0.109	1.955
<i>LAGROA</i>	5,278	0.016	0.081	-0.364	0.001	0.023	0.051	0.234
<i>OCF</i>	5,278	0.049	0.070	-0.170	0.008	0.045	0.089	0.247
<i>FOR</i>	5,278	10.016	12.318	0.000	1.620	4.950	13.780	57.950

주1) 변수의 정의

LnAF=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LnA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Feeperhour*=시간당 감사보수(감사보수/감사시간); *EBC*=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AC*=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LnAC_SIZE*=감사위원 수의 자연로그 값; *ACEXP*=회계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는 1, 그렇지 않으면 0; *BIG4*=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SIZE*=기말 총자산가액의 자연로그 값;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LEV*=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CURR*=유동자산/유동부채; *LOSS*=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매출액성장률(매출증가액/전기매출액); *LAGROA*=전기총자산수익률; *OCF*=영업현금흐름/총자산;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먼저,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감사보수(*LnAF*)와 감사시간(*LnAH*)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18.785(18.644), 7.516(7.359)으로 나타난다. 독립변수인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로 나타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AC*)은 전체표본의 40%를 차지한다. 그 외의 통제변수의 경우 *BIG4* 감사인(*BIG4*)을 선임한 기업은 전체표본의 61%로 나타나며, 기업규모(*SIZE*)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26.920과 26.673이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INVREC*)은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22.8%를 차지하며, 부채비율(*LEV*)은 39.7%, 유동비율(*CURR*)은 294.540으로 나타난다. 또한 손실을 보고한 기업(*LOSS*)은 전체표본의 24%를 차지하며, 표본기업의 매출액 성장률(*GRW*)은 매년 4.6%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 총자산이익률(*LAGROA*)은 평균 1.6%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OCF*)은 평균 4.9%,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은 10.016으로

로 나타난다.

2.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실증모형 식(2)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의 <표 2>는 [가설 1-1]과 [가설 1-2], 그리고 [가설 1-3]에 대한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2>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의 존재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i>LnAF</i>		<i>LnAH</i>		<i>Feeperhour</i>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7.019	45.18***	-4.552	-31.44***	4.718	64.47***
EBC	0.013	0.81	0.044	3.03***	-0.020	-2.73***
<i>BIG4</i>	0.255	17.71***	0.310	23.11***	-0.088	-12.94***
<i>SIZE</i>	0.444	75.32***	0.450	81.83***	-0.081	-29.24***
<i>INVREC</i>	0.122	2.65***	0.119	2.78***	-0.025	-1.13
<i>LEV</i>	0.273	7.30***	0.120	3.43***	-0.007	-0.38
<i>CURR</i>	0.000	-7.43***	0.000	-9.61***	0.000	5.86***
<i>LOSS</i>	0.109	6.59***	0.105	6.79***	-0.016	-1.99**
<i>GRW</i>	-0.030	-1.51	-0.024	-1.30	0.001	0.06
<i>LAGROA</i>	-1.185	-13.16***	-0.713	-8.50***	0.027	0.64
<i>OCF</i>	-0.086	-0.86	-0.190	-2.06**	0.083	1.78*
<i>FOR</i>	0.007	11.33***	0.003	5.97***	0.000	1.41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986.83***		1034.88***		140.63***	
Adj R ²	0.7802		0.7882		0.3346	
N	5,278		5,278		5,278	

주1) 변수의 정의

LnAF=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LnA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Feeperhour*=시간당 감사보수(감사보수/감사시간); *EBC*=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BIG4*=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SIZE*=기말 총자산가액의 자연로그 값;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LEV*=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CURR*=유동자산/유동부채; *LOSS*=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매출액성장률(매출증가액/전기매출액); *LAGROA*=전기총자산수익률; *OCF*=영업현금흐름/총자산;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Sigma YEAR$ =연도 고정효과; ε =잔차항.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먼저, [가설 1-1]과 [가설 1-2]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예상한 것과 같이 *EBC* 계수 β_1 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종속변수가 감사시간인 경우에서만 *EBC* 계수 β_1 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경영자에게 회계이익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통제위험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위험이 커질수록 감사노력에 해당하는 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노력에 해당하는 감사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감사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설 1-3]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감사보수에 비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감사시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EBC* 계수 β_1 의 계수 값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므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의 시간당 보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감사인이 높은 확신수준¹⁾에 도달하기 위해 감사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부여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은 시간당 감사보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시간 간의 유의한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BIG4* 감사인(*BIG4*), 기업규모(*SIZE*), 총자산에서 채고 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INVREC*), 부채비율(*LEV*), 손실을 보고한 기업(*LOSS*),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FOR*)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유동비율(*CURR*)과 전기 총자산이익률(*LAGROA*)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감사인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양(+)의 관계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커서 복잡성 수준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사위험으로 작용하므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예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유동비율이 높거나 전기성과가 높은 고객 기업은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낮으므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직관적인 추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이 감사위원회의 특성 변수(*AC_Characteristics*)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가설 2-1]과 [가설 2-2]에 대한 각각의 회귀분석결과이다.

1) 유성용·박범진(201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내부이해관계자는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외부이해관계자는 그들이 맡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에 대한 확신수준을 표시해야 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Panel A]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AC*)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i>LnAF</i>		<i>LnAH</i>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7.179	43.21***	-4.437	-28.65***
<i>EBC</i>	0.009	0.47	0.048	2.75***
<i>EBC</i> × <i>AC</i>	0.018	0.54	-0.009	-0.28
<i>AC</i>	0.038	2.39**	0.030	2.01**
<i>BIG4</i>	0.252	17.48***	0.308	22.92***
<i>SIZE</i>	0.438	68.58***	0.445	74.80***
<i>INVREC</i>	0.117	2.53**	0.115	2.67***
<i>LEV</i>	0.277	7.40***	0.122	3.51***
<i>CURR</i>	0.000	-7.42***	0.000	-9.56***
<i>LOSS</i>	0.109	6.56***	0.104	6.76***
<i>GRW</i>	-0.029	-1.46	-0.024	-1.26
<i>LAGROA</i>	-1.181	-13.13***	-0.710	-8.46***
<i>OCF</i>	-0.084	-0.84	-0.191	-2.06**
<i>FOR</i>	0.007	11.23***	0.003	5.90***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94.3***		936.94***	
Adj R ²	0.7805		0.7883	
N	5,278		5,278	

[Panel B] 감사위원회의 규모(*LnAC_SIZE*)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i>LnAF</i>		<i>LnAH</i>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7.173	43.32***	-4.432	-28.71***
<i>EBC</i>	0.023	1.15	0.055	2.98***
<i>EBC</i> × <i>LnAC_SIZE</i>	-0.023	-0.75	-0.025	-0.90
<i>LnAC_SIZE</i>	0.038	2.70***	0.031	2.34***
<i>BIG4</i>	0.252	17.52***	0.308	22.94***
<i>SIZE</i>	0.438	68.83***	0.445	75.00***
<i>INVREC</i>	0.115	2.49**	0.114	2.65***
<i>LEV</i>	0.277	7.40***	0.123	3.51***
<i>CURR</i>	0.000	-7.31***	0.000	-9.49***
<i>LOSS</i>	0.109	6.56***	0.104	6.76***
<i>GRW</i>	-0.029	-1.44	-0.023	-1.24
<i>LAGROA</i>	-1.179	-13.10***	-0.708	-8.44***
<i>OCF</i>	-0.086	-0.86	-0.191	-2.07**
<i>FOR</i>	0.007	11.12***	0.003	5.80***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94.11***		937.2***	
Adj R ²	0.7804		0.7884	
N	5,278		5,278	

〈표 3〉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계속)

[Panel C] 감사위원회의 회계나 재무전문가 포함 여부(ACEXP)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LnAF		LnAH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7.061	44.68***	-4.541	-30.82***
EBC	0.027	1.18	0.042	2.00**
EBC×ACEXP	-0.024	-0.76	0.005	0.17
ACEXP	0.026	1.73*	0.004	0.28
BIG4	0.253	17.53***	0.309	23.02***
SIZE	0.442	73.01***	0.449	79.58***
INVREC	0.116	2.52**	0.118	2.74***
LEV	0.274	7.32***	0.120	3.43***
CURR	0.000	-7.33***	0.000	-9.58***
LOSS	0.109	6.56***	0.105	6.78***
GRW	-0.030	-1.50	-0.024	-1.30
LAGROA	-1.180	-13.10***	-0.712	-8.48***
OCF	-0.085	-0.86	-0.190	-2.05**
FOR	0.007	11.25***	0.003	5.96***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93.16***		936.01***	
Adj R ²	0.7802		0.7882	
N	5,278		5,278	

주1) 변수의 정의

LnAF=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LnA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EBC=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AC=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LnAC_SIZE=감사위원 수의 자연로그 값; ACEXP=회계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는 1, 그렇지 않으면 0; BIG4=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SIZE=기말 총자산가액의 자연로그 값;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LEV=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CURR=유동자산/유동부채; LOSS=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매출액성장률(매출증가액/전기매출액); LAGROA=전기총자산 수익률; OCF=영업현금흐름/총자산;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Σ YEAR=연도 고정효과; ε =잔차항.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표 3>에서는 감사위원회 특성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의 규모 및 회계나 재무전문가의 포함 여부로 [Panel A], [Panel B], 그리고 [Panel C]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먼저, [Panel A]~[Panel C]에서 <표 2>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가 감사시간인 경우에는 EBC 계수 β_1 이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시간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Panel A]와 [Panel B]에서 EBC×AC와 EBC×LnAC_SIZE의 계수 β_2 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Panel C]도 EBC×ACEXP의 계수 β_2 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가설 2-1]과 [가설 2-2]에 따라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

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감사위원회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본 연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경우 앞서 <표 2>와 동일하게 BIG4 감사인(BIG4), 기업규모(SIZE), 총자산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INVREC), 부채비율(LEV), 손실을 보고한 기업(LOSS),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반면에 유동비율(CURR)과 전기 총자산이익률(LAGROA)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추가분석 :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주요 분석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앞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질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분석에서는 표본기간을 2022년까지 확장하여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증하고자 한다.

<표 4>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Panel A]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AC)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LnAF		LnAH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12.447	94.95***	0.788	6.24***
EBC	0.123	2.9***	0.080	1.96*
EBC×AC	-0.161	-2.64***	-0.141	-2.39**
AC	0.192	12.38***	0.183	12.26***
BIG4	0.368	24.31***	0.416	28.54***
SIZE	0.257	48.85***	0.263	51.94***
INVREC	-0.305	-6.31***	-0.286	-6.15***
LEV	0.664	16.88***	0.508	13.41***
CURR	0.000	-7.77***	0.000	-9.33***
LOSS	0.014	0.77	0.005	0.32
GRW	-0.324	-16.7***	-0.325	-17.41***
LAGROA	-0.893	-9.03***	-0.460	-4.83***
OCF	-0.015	-0.14	-0.169	-1.65*
FOR	0.014	21.97***	0.011	18.06***

〈표 4〉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계속)

Dep Var.	<i>LnAF</i>		<i>LnAH</i>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697.12***		646.04***	
Adj R ²	0.7185		0.7028	
N	6,002		6,002	

[Panel B] 감사위원회의 규모(*LnAC_SIZE*)가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Dep Var.	<i>LnAF</i>		<i>LnAH</i>	
Variable	β	(t-value)	β	(t-value)
Intercept	12.441	94.94***	0.790	6.26***
<i>EBC</i>	0.156	3.52***	0.113	2.64***
<i>EBC</i> × <i>LnAC_SIZE</i>	-0.191	-3.56***	-0.174	-3.37***
<i>LnAC_SIZE</i>	0.172	12.34***	0.167	12.48***
<i>BIG4</i>	0.370	24.48***	0.418	28.69***
<i>SIZE</i>	0.257	48.84***	0.262	51.88***
<i>INVREC</i>	-0.312	-6.45***	-0.293	-6.3***
<i>LEV</i>	0.666	16.95***	0.510	13.49***
<i>CURR</i>	0.000	-7.61***	0.000	-9.16***
<i>LOSS</i>	0.013	0.76	0.005	0.31
<i>GRW</i>	-0.325	-16.74***	-0.326	-17.43***
<i>LAGROA</i>	-0.894	-9.04***	-0.461	-4.84***
<i>OCF</i>	-0.012	-0.11	-0.166	-1.62
<i>FOR</i>	0.014	21.6***	0.011	17.68***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697.1***		646.94***	
Adj R ²	0.7185		0.7031	
N	6,002		6,002	

주1) 변수의 정의

LnAF=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LnA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EBC*=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 *AC*=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 *LnAC_SIZE*=감사위원 수의 자연로그 값 ; *BIG4*=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SIZE*=기말 총자산가액의 자연로그 값 ;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LEV*=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 *CURR*=동자산/유동부채 ; *LOSS*=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 *GRW*=매출액성장률(매출증가액/전기매출액) ; *LAGROA*=전기총자산수익률 ; *OCF*=영업현금흐름/총자산 ;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Sigma YEAR$ =연도 고정효과 ; ε =잔차항.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감사위원회 특성은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AC*)와 감사위원의 규모(*LnAC_SIZE*)로 구분하며, 이를 <표 4>의 [Panel A]와 [Panel B]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표 3>과 달리 2022년까지 표본기간을 확장한 <표 4>의 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감사시간인 경우뿐만 아니라 감사보

수인 경우에서도 EBC 계수 β_1 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위원회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4>의 [Panel A]와 [Panel B]에서는 종속변수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인 경우에서 모두 $EBC \times AC$ 와 $EBC \times LnAC_SIZE$ 의 계수 β_2 가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가설 2-1]과 [가설 2-2]에 따라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위원회가 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의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본 연구의 표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각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분이 경영자 급여의 변화분을 설명하는 정도인 식(1)의 회귀계수 a_i 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 수도 상당히 감소하여 2022년까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타격이 없는 기업만 독립변수로 남아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주주와 경영자 간 목표불일치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경영자 성과평가 및 보상과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회계성과에 기초한 회계이익 보상과 주가수익률에 기초한 스톡옵션 보상이 있다. 하지만 이익침해가설에 따르면 경영자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보상증대를 위해 행동할 유인도 존재한다. 결국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이익 보상이 회계이익을 왜곡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이면 회계제도와 통제절차가 유효하게 설계되었더라도 통제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경영자가 이를 우회할 수 있기에 통제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계약 체결 시 증가된 감사위험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감사보수와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성은 여러 감사위원회의 특성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증한다.

이에 [가설 1-1]과 [가설 1-2]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

재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보수와 달리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영자에게 회계이익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통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위험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위험이 커질수록 감사노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사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에 대한 확신수준을 표시해야 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감사인이 높은 확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사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설 1-3]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시간당 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설 2-1]과 [가설 2-2]에 따라 이러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계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의 규모, 그리고 회계나 재무전문가의 포함 여부로 구분한 감사위원회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추가분석에서는 2022년까지 표본기간을 확장하여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그 결과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모두 증가시키며, 이러한 이익기준 경영자 보상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와 달리 회계이익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위원회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과 공헌점이 있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신현걸 · 정재연. 2006.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175-201.
- 김용길 · 이용수 · 한승수. 2015. “경영자 보상 형태와 원가 비대칭성”. 회계저널 제24권 제5호 : 141-176.
- 김진배 · 변동헌 · 신준용. 2004. “임금구조와 성과급 제도가 기업가치 요소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 115-144.
- 박범진. 2021. “경영자와 종업원 간 보상차이와 감사품질에 대한 Big 4 감사인의 조절효과”.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2호 : 61-72.
- 송동엽 · 김영환. 2018. “경영자보상, 기업지배구조, 경영위험, 기업가치의 관련성 실증분석”. 금융공학연구 제17권 제4호 : 133-159.
- 유성용 · 박범진. 2012. “기업의 소유구조가 감사인의 노력을 고려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 89-116.
- 이상철 · 박재완 · 정갑수. 2010.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 103-132.
- 이은주 · 송영렬 · 심원미. 2019. “경영자 능력이 경영자 성과-보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실무학회지 제5권 제2호 : 35-45.
- 장석오 · 노현섭. 2004. “경영자 보상에 대한 이익조정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6호 : 2605-2630.
- 전영순 · 정준희 · 하승현. 2013. “감사위원회 재무 전문가의 효과와 기업지배구조”. 회계학연구 제38권 제4호 : 31-60.
- 정현욱 · 이강일. 2014.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4호 : 113-149.
- 지성권 · 김태수. 2001. “경영자보상과 회계이익특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26권 제1호 : 25-54.
- 황인태. 1995. “경영자보상과 기업성과”. 회계학연구 제20권 제3호 : 107-125.
- Abbott, L. J., S. Parker, and G. F. Peters. 2004.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restat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1) : 69-87.
- Anderson, R. C., S. A. Mansi, and D. M. Reeb. 2004. Board characteristics, accounting report integrity, and the cost of deb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7(3) : 315-342.
- Bergstresser, D. and T. Philippon. 2006. CEO Incentiv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0 : 511-529.
- Burns, N. and S. Kedia. 2006. The Impact of CEO Incentives on Misreport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35-67.

- Carcello, J., D. Hermanson, T. Neal and R. Riley Jr. 2002.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3) : 365–384.
- Carey, P. and R. Simnett. 2006. Audit partner tenure and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1(3) : 653–676.
- Chen, K. Y. and J. Zhou. 2007. Audit committee,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or switch decisions by Andersen’s clien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4(4) : 1085–1117.
- Cheng, S. 2004. R&D Expenditures and CEO Compensation. *The Accounting Review* 79(2) : 305–328.
- Chi, W., H. Huang, Y. Liao, and H. Xie. 2009. Mandatory audit partner rotation, audit quality, and market perception : Evidence from Taiwa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2) : 32–36.
- Cosgrove, S. and M. Niederjohn. 2008. The Effect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Audit Fees. *Journal of Business Strategies* 25 : 31–52.
- Dechow, P. W. and R. G. Sloan. 1991.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1) : 51–89.
- Goodwin–Stewart, J. and P. Kent, 2006, Relation between external audit fees,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audit, *Accounting & Finance* 46(3) : 387–404.
- Gul, F., J.P. Chen, and J. Tsui. 2003.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Managers’ Incentive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3) : 441–464.
- Healy, P. M. 1985. The Effects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 : 85–107.
- Hoitash, R., and U. Hoitash. 2009. The role of audit committees in managing relationships with external auditors after SOX : Evidence from the USA.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4(4) : 368–397.
- Holmstrom, B. 1979.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 74–91.
- Ittner, C. D., D. F. Larcker, and M. V. Rajan. 1997. The Choice of Performance Measures in Annual Bonus Contracts. *The Accounting Review* 72(2) : 231–255.
- Lambert, R., and D. Larcker. 1987. An Analysis of the Use of Accounting and Market Measures of Performance in Executive Compensation Contrac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supplement) : 85–125.
- Lennox, C. S. and C. W. Park. 2007. Audit firm appointments, audit firm alumni, and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4(1) : 235–258.

- Lennox, C. S., X. Wu, and T. Zhang. 2014. Does mandatory rotation of audit partners improve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9(5) : 1775–1803.
- Litt, B., D. S. Sharma, T. Simpson, and P. N. Tanyi. 2014. Audit partner rot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3) : 59–86.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 161–190.
- Sloan, R. 1993. Accounting Earnings and Top Executive Compens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1–3) : 55–100.

The Effect of Earnings-based Compensation on Audit Fee and Audit Hour : Focusing on the Role of Audit Committee

Sung Ook Park* · Seo Hyun Kim**

〈Abstract〉

Since managers can conduct management activities for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to maximize corporate value, shareholders implement controls such as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to reduce managers' goal-inconsistent behavior. However, earnings-based compensation granted to these managers can also provide an incentive to act for the manager's private interests. As a result, it can appear as a material misstatemen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in terms of audit, it can affect the control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control risk. In the e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udit fees and audit hours will increase because external auditors must invest a lot of audit efforts due to increased audit risk when signing an audit contract.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granting of earnings-based compensation to managers who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and studie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based compensati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for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from 2013 to 2021.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only audit hours increase for companies with a managers' earnings-based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granting earnings-based compensation to managers affects the control environment, and the audit effort increases relatively as the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ue to this control risk increases. In addition, companies with managers' earnings-based compensation appear to have a lower audit fees per audit hours. This is because auditors invest relatively more audit hours than audit fees to reach a high level of confidence. Howeve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earnings-based compensation and audit fees and audit hours is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which is divided into whether the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size of the audit committee, and whether the audit committee includes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s. However, the results of an additional analysis by extending the sample period to 2022 show that companies with managers' earnings-based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First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ksh2019@khu.ac.kr, Corresponding Author

compensation increases bo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and this relationship appears to be allevi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Since stock prices can be influenced by common factors in the market rather than the efforts of managers, there may be noise in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case of stock-based compensation. In contra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manager's earnings-based compensation based on external auditors' evaluation of earnings-based compensation granted to managers.

〈Key words〉 Earnings-based compensation, Audit Fee, Audit Hour, Audit Committee